

다산포럼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사도금산을 둘러싼 대일외교에서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역사전쟁의 불후퇴방어선을 포기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일본은 사도금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면서 강제동원의 사실을 교묘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지웠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성의를 보였다면 아이카와황토 박물관의 전시실 가벽에는 아베 내각이 강제성을 지우기 위해 발명해 낸 '조선반도출신 노동자'라는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집, 알선, 징용이 당시 법령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이 강조되어 있다. 또 다른 가벽에는 '사도광업소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라는 문건이 내걸려 있다. 어쩌면 이쪽 내용이 더 심각하다. 위생에 관한 항목에는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의 완비를 도모(하여...) 위생관념 보급에 힘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관대한 식민지배자의 얼굴이 보인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혜'였다는 일본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뉴라

'뉴라이트' 전성시대가 의미하는 것

이트' 역사인식이 전면화하고 있다. 7월 30일에는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집필자인 김낙년 전 동국대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하고, 8월 6일에는 1919년 건국절을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는 김형석 대한민국의사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이에 반발한 광복회가 불참함으로써 반쪽짜리로 전락한 광복절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언급 없이 경축사를 발표했다. 한일 '역사전쟁'에 중기부를 찍고, 남남 '역사내전'을 개시하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그리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나왔다. 이후 역사내전은 건국절과 국적 문제를 전선으로 삼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논쟁의 핵심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정작 뉴라이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은 어땠을까. 1951년 1월 말,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대일강화에 대한 한국의 근본방침'에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정부가 강요당한 제 조약의 폐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52년 2월 15일 한일회담 본회담 제1차 교섭이 개시된 뒤, 한국 정부가 3월 5일 제시한 기본 조약안에는 위의 근본방침에 따라 이들 조약이 무효(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 '구조적 무효확인조항'은 '일본의 마음'을 건드렸다. 일본 측은 이 조항이 "일본 국민의 심리적 측면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염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 조항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면 일본이 아직도 침략행위의 과오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하고, 이 조항이 "한국민의 민족감정에 나타난 기본노선"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당시 우리 측 대표였던 유진오에 따르면 이 조항의 삽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일 역사전쟁에서 불후퇴방어선이 되었다. 그런데 사도금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이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 김태호 차장은 작년 3월 '제3차 대위변제' 방침을 설명하며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 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 대일외교는 일본의 마음을 사는 데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뉴라이트'의 진짜 전선은 역사가 아니다. 지난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한일상호군사지원협정(한일ACSA)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알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상호군사지원협정이라는 것은 평시에는 물론 전시에도 각종 군수 물품과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을 말한다.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에 군사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것인데, 후방지원의 전장으로 치러지는 현대전에서 거의 동맹조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개시한 남남 '역사내전'은 한반도의 남부를 대륙붕쇄의 전방 전진기지로 내어 주기 위한 전초전인지 모른다.

NGO 칼럼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

체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끝 모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적 위험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진정한 문제는 김형석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김형석은 이미 발생해 있는 문제를 비추는 창(窓)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철 지난 냉전 대결 논리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선, 중국과 러시아는 악,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세력은 내 편, 그렇지 않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익을 해치는 중보 세력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였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 한일 동맹을 절대 선으로 규정한 신념화된 낡은 이념의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항의 한번 없다.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일본의 부조리한 논리를 대변하는 책자까지 발행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까지 하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일제하 조선인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측의 논리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유네스코 등재를 인정해준 것이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오른 신원식은 불가역적인 한일군사 동맹에서 명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많은 안보전문가가 이것이 독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대한민국 영토마저 일본의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기지로 내어놓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도의 일본 군사기지화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주권을 수호할 대통령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김형석은 이 위험한 논리를 신념화한 세력인 '뉴라이트'의 일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김진숙, 김문수 등 뉴라이트 인사들도 점철되어 있다. 뉴라이트가 대한민국 행정 권력의 정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 '친일 매국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 연사가 아니라 실제적 위험에 대한 분노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뉴라이트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5·18을 폄훼해 왔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정용성 등 오랜 기간 음악가이며 독립운동가의 면모에 주목해 지 역사회에서 기념사업을 의제화해왔던 인물을 이념의 틀로만 조리 돌리며 친일 정부의 정당성을 위한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고 있는 이들도 뉴라이트이다. 모든 것을 떠나 이들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기고

학교의 언어와 교육의 본질

피켓을 흔들며 사진을 찍는다. '장난 씨앗이 점점 자라 커다란 00 나무가 된다'는 우수상 수상작 표어가 전광판에 24시간 붉은 글자로 지나가며 캄캄한 운동장을 밝힌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자. 그 어린 마음에 다정하고 고운 말들을 담아주자. 제비꽃 수선화, 몽게구름 산들바람 보슬비 사뭇물, 느티나무와 능수버들..., 소리 내어 말하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순해지는 이런 말들을 품고 살게 하자. 꾀꼬리 동고비 동박새, 이런 새 이름도 알려주자. 우리가 하는 말 듣는 말은 마음에 남고 몸에 스며들고야 마는 것이다. '예방, 미리 막다. 학교에는 또한 '예방'이 많다. 자살 흡연 음주 약물 인터넷중독 성00 학대..., 아이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단어 들 역시 교정의 현수막과 학교 누리집에 종종 등장한다. 현수막을 걸고 소리 높여 외쳐대던 정발 예방이 되는 지 궁금하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성이 강화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구호와 다짐 대신, 아이들과 뒤통산을 산책하겠습니다. 마주 앉아 거뭇고와 대금을 들으며 하루 한 잔 차를 마시겠습니다. 운동주와 백석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은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속삭이면 된다. 그냥 말없이 하면 되는 일이다. 놀이 이야기 예술 여행... 상상만 해도 재미나고 흥이 나는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하면, 막아내야 할 것들은 애써지 않아도 절로 멀어질 터이다. 친구 우정 다정 생명 건강 존중, 이런 단어를 불러내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하지만 이런 단어마저도 필요하지 않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을 하고, 인성이라는 단어 없이 인성을 다듬고, 교육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말고 교육하자. 언젠가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선생님이 두통한 인쇄물을 나눠준다. 지인이 대학원 논문을 쓰는 데, 설문 통계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받았었다. 응답자를 위한 작은 선물을 들어왔다. 옆자리 쌤이 답을 적다가 문득 묻는다. "우리가 전문직은 아니지?" 쌤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근무지에 이어서 전문직인가를 묻고 있었다. 다른 쌤이 알려준다. "응, 전문직은 교육청 장학사잖아." (교육청에 '교육 전문직'이라는 직책이 있다. 일정 자격과 점수를 가진 교사들이 시험을 보고 장학사가 되어 교육청으로 간다.) '예, 아니오'의 작은 네모앞에서 우리는 한참 머뭇거렸다. 사진을 찾아본다. '전문직: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아이들의 여러 면모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책을 권하고, 조언을 주는 일을 하는 교사,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교사가 전문직이 아니라니. 아이들 곁을 지키는 교사를 소외시키는 이런 직책명, 괜찮은가. 호모 로렌스, 인간은 언어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언어로 정교하게 사유하고,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삶을 정의한다. 학교도 회사도 사회도 언어로 직조된 유기체다. 학교의 언어를 새겨보는 것은 교육과 삶의 본질을 다지는 일이다.



강정희 전 강진 대구중 교사

학교 00, 여기서 00을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터이다. 이 단어를 밝혀 쓰고 싶지 않다. 이것은 학교에 너무 많다. 매우 많거나 무척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 현수막에 쓰여 교문과 담장에 딱하니 걸려있고, 현관 입간판에도 번듯하게 적혀있다. 복도와 교실 게시판에는 정복 차림 경찰관 사진과 함께 포스터로 붙어있다. 이제 이 단어는 학교와 찰착 붙어서 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줄서서 2층절로 말하면 더욱 가슴이 답답해지며 호흡곤란이 을 지경이다. 사나운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우리 아이들의 보드라운 뇌에 깊이 새겨져 있으리라.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라고 가슴에 품고 매일 살아가고 있으리라. '힘글 효과'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론을 읽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것을 떠올려야 한다. 학교에서는 00을 예방하고 경계하기 위해 이 단어로 온갖 활동과 행사를 한다. 강사 초청특강을 하고 4행시와 6행시 짓기 대회를 연다. 아이들이 이 단어를 크게 쓴 어깨띠를 몸에 두르고 작은 손으로 현수막을 붙들고

社說

韓·李 민생 협의...의료대란 해결 기회 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국회에서 만나 대표회담을 갖고, 향후 여야 협의의기구를 만들어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간 당대표 공식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이날 양측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쟁점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구축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추진 등의 결정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쟁을 해결할 수순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에 함께 집중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측은 8개 항의 합의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당 민생 공동 공약 추진 협의의 기구 운영, 금투세 검토 협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노력, 반도체 사업 및 국가 전력망 적극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노력,

저출산 관련 입법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으로 과제를 좁혔다. 하지만 핵심의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채상병 특검법 등은 이견차만을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장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차 추천'을 주장한 한 대표 입장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대립했다. 첫 대표회담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나름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첫 합의 내용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당 대표는 앞으로 자주 만나 8개 항의 합의안을 추진해 국민에게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늘어나는 '대형 싱크홀' 쉽게 볼 문제 아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상·하수도 관로 노후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에서도 대형 싱크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지역 지하 상·하수도 관로의 대부분이 노후화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로 손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로는 총 4472km이며, 이중 42%인 1910km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다. 광주시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정밀조사한 결과, 노후 하수관로 중 123km가 파손이 심해 정비·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태이다. 광주시는 19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공사에 나서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2021년에 시행된 36km구간뿐이다.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70km

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노후관로로 인한 땅 꺼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위험신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년(2019-2024년 7월)간 광주에서 122건에 달하는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반침하 발생 원인으로서는 70%에 달하는 85건이 하수관 손상 때문으로 파악됐다. 도로 다짐 불량이나 23건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 매설물 손상 3건, 굴착공사 부실 1건, 원인 미상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미리 막는 게 최선이다. 도로 노후 상태와 공사 현장 주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고를 막을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 대형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관로 노후화와 지하철 공사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노후 관로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지하철 공사 때 더 철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無等鼓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다. 석류꽃이나 지자꽃, 능소화 같은 여름 꽃은 열흘 이상 피어 있기도 하니 어찌가 있는 말이다. 또 열흘을 훌쩍 넘겨 100일 넘게 피는 꽃도 있다. 꽃이 100여 일을 핀다고 해서 '백일홍'으로도 불리는 배롱나무꽃이다. 7월부터 9월까지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는 여름을 대표하는 꽃나무라 할 수 있다. 이 나무를 땅에 풀로 자라는 초본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나무 백일홍 '목백일홍(木百日紅)'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백일홍나무'가 '배기롱나무'라고 불리다 '배롱나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석 달 열흘 이상 꽃이 피는 것이 신기했는지 이를 눈여겨본 선조도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1712~1781)은 배롱나무꽃이 얼마나 오래 피어 있는가를 관찰한 적이 있다. 그 결과가 '여암유고(旅菴遺稿)'에 실린 '순원화훼잡설(淳園花卉雜說)'에 나와 있는데 "먼저 핀 꽃이 지려고 할 때 그 뒤의 꽃이 이어서 피어나 100일 하고도 열흘 남짓 붉은빛을 유지하더

라"라고 했다. 우리 선조들은 그 꽃이 100일 동안 붉게 보이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듯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배롱나무꽃이 한번 피면 100일 넘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 꽃이 피어 오랜 기간 붉게 보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가지 끝 원추 모양 꽃차례에 작은 꽃들이 이어가며 석 달 열흘가량을 피고 진다. 소나무가 푸른 잎이 지고 난 자리에 곧 새 잎이 돋아 늘 푸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이치대로 꽃은 피면 지기 마련이다. 오래 핀다는 배롱나무꽃도 예외일 순 없다. 100일 동안 피고 지고 끝 무렵이 되면, 버가 고개를 숙이고 울버가 나오는 가을이 된다. 폭염이 계속되며 가을이 언저리 오려나 습지만, 배롱나무꽃처럼 뜨겁게 익어가면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은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임을 알아야 한다. /김대성·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